



# 정교회주보

제2480호

2024.07.0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메테오라의 수도원 탐방 5> 성 스테파노스 수녀원(사진)은 해발 528m 높이의 바위 기둥 위에 세워졌다. 12세기 말부터 이곳에 수도자들이 정착했으며, 수도원 건립은 1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다리로 일반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961년부터 수녀원으로 바뀌었으며, 비잔틴 시대 이후의 성화, 문서, 금 자수 제의, 정교한 은세공 성물 등이 보존되어 있다.



마태오 제2주일  
성 끼리아끼 대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2)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갈라디아 3,23~4,5 (봉) 24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 10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시오, 나를 때려주시는 친구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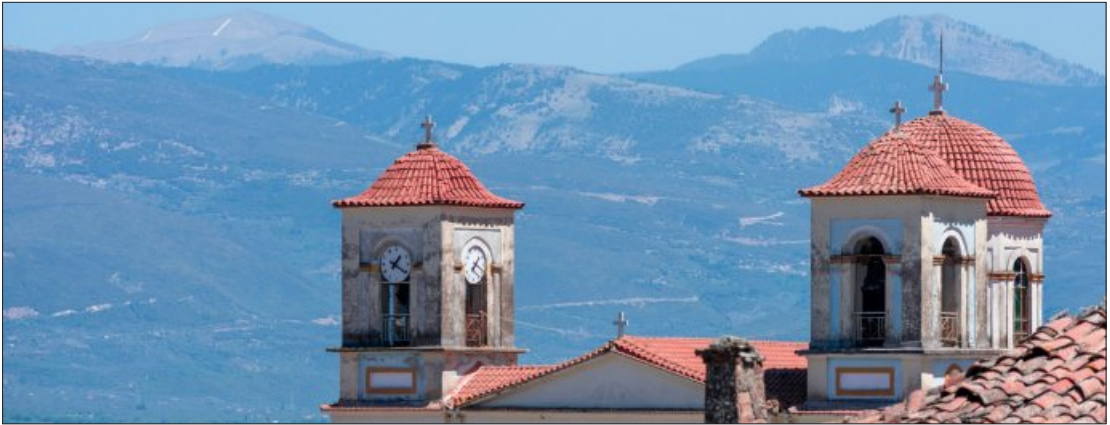
착한 목자는 또한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어떤 내적인 앎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선구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요한 1,29) 이 선포는 구세주의 공생애에서 그분의 세례 받으심 다음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듣고 요한의 두 제자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린 양으로의 계시, 그것은 구원의 신비의 문턱입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 주님이 맡기신 하느님의 일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느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길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양식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일과 성령께서 베풀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려는 역사를 이룩하시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

우리도 주님께서 드셨던 양식을 맛보기 위해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느님의 일이란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으로 이를 행하는 일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항상 일을 하시니 너희도 항상 일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 대부분은 어부였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을 했고, 사도 바울로는 천막을 만들며 생활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이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는 일이든 모두 거룩한 것이다.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하느님께서서는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어지게 하셨다.

또한 백인대장 고르넬리오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 일을 열심히 했기에 큰 상을 받게 된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세 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고르넬리오!”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무슨 일이십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사도행전 10,2-4)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성심껏 지상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오 25,21)



# 지금 당신이 뿌리는 것에 주의하라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지금 당신이 뿌리는 것에 주의하라.  
이것이 내일 당신이 거두어들이는 것을 결정할 테니까."

만일 당신이 정직함을 뿌린다면, 신뢰를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친절을 뿌린다면, 친구를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겸손을 뿌린다면, 위대함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숙고(熟考)를 뿌린다면, 조화를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힘든 노동을 뿌린다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용서를 뿌린다면, 화해를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순수와 솔직함을 뿌린다면, 좋은 관계를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인내를 뿌린다면, 향상과 진보를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믿음을 뿌린다면, 기적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부정직과 불성실을 뿌린다면, 불신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기심과 고집을 뿌린다면, 외로움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교만을 뿌린다면, 파멸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시기와 질투를 뿌린다면, 고통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태와 게으름을 뿌린다면, 침체와 부진(不振)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고통과 쓴맛을 뿌린다면, 고립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욕심과 탐욕을 뿌린다면, 상실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악을 뿌린다면, 적들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죄를 뿌린다면, 죄책감을 거둘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 영혼의 한 부분을 뿌린다면, 사랑을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뿌리는 것에 주의하라.  
그것이 내일 당신이 무엇을 거둘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 알림

##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올해 대교구 여름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는 17일까지 받습니다.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일정 : 7/26(금)-28(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9(월)-8/1(목): 중고등학생 (참가비 9만원)

8/1(목)-6(화): 초등학생 (참가비 15만원)



## ■ 인천 성당 세례성사 및 축일 소식

6월 29일(토)에는 스피리돈 신재우-신 크리스티나 부부의 넷째 자녀 테오도로스가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일(6월 30일)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다니엘 대신부와 함께 조과, 성찬예배 및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신자와 축일 오찬을 나누고,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강연

지난 6월 27일(목),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A&A생명영성연구원(서울 강서구)의 초청을 받고 방문하여 정교회의 영성, 예수기도, 이콘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3시간에 걸쳐 강연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과 열의로 참여했습니다.

## ■ 가평 수도원 보일러 교체 공사

노후화로 누수가 심한 보일러 및 펌프 교체와 침수 피해를 입은 보일러실 보강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사 비용은 6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사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현금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077-043247-13-601

(재단법인 한국 정교회 유지재단)

## 소중한 가르침

### - 계명의 실천 -

하느님의 말씀이 단지 입술에 발린 말로 표현된다면 그리고 그 의미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에서의 덕행에 뿌리하고 있지 않다면 듣는 이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계명을 실천함에서 나온다면 그 소리는 악마를 쫓고, 의의 역사(役事)가 진행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느님의 성전을 짓게 한다.

(성 막시모스 고백자)